

요동치는 'MB 물가' 서민 살림 어떡하나

소주·세제 등 연초부터 줄줄이 인상

지난해 3월 이명박(MB)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서민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이른바 'MB생필품' 52개 품목 가운데 상당수 생필품 가격이 연초부터 줄줄이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살림 살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서민·국가 경제 부양을 위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언했으나 정작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특단의 물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주류업체인 보해양조는 오는 11일부터 앞세우의 출고가격을 839.36원에서 888.9원(5.9%)으로 인상키로 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소주의 소매가격이 9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서민의 영양식품인 계란 값도 폭등해 현재 일반란(30개)의 경우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2004년 1차 AI(조류인플루엔자) 파동 이후 최고치인 5

천230원에 팔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의 설탕 출고가격 15%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해표의 식용유가 각각 18%, 14.8% 오른 데 이어 새해들어 세제, 샴푸, 계란, 휘발유 등 'MB생필품'들이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인상추세는 이미 지난해말 본격화됐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MB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분석결과 가격이 오른 품목은 절반이 넘는 29개로 전체의 55.8%에 달했다. 반면 가격이 내리거나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각각 12개(23.1%)와 11개(21.2%)에 그쳤다.

음식료 25개 품목에서는 절반이 훨씬 넘는 16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양파(41.9%), 돼지고기(34.7%), 우유(23.4%) 등 6개 품목은 20% 이상이나 올랐으며 10개 품목은 10% 이상 인상됐다.

휘발유 소매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내림세를 계속하다 연초부터 다시 오름세로 반전, 3일 기준 전국 휘발유 소매가격이 8 당 평균 1천300원선을 다시 넘어섰다.

샴푸와 린스, 세탁 세제 등 주요 생활 용품도 새해부터 줄줄이 인상됐다. LG생활건강과 에경은 샴푸·린스와 세탁세제 등을 8~10% 인상된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주요 치약제품인 '숨쉬치약'의 가격을 7~8%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원가상승 등 요인에 따라 가격 인상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악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를 한층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슈퍼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20% 가량 폭등한 생필품 가격이 올해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며 "서민들의 생계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슈퍼마켓 업체도 가격인상 여파로 매출이 급락해 문을 닫는 곳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슈퍼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20% 가량 폭등한 생필품 가격이 올해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며 "서민들의 생계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슈퍼마켓 업체도 가격인상 여파로 매출이 급락해 문을 닫는 곳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역시 일해야 신난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휴무를 끝내고 5일부터 다시 풀 가동에 들어간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에서 활기찬 표정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LED 제품 KS 기준은 '메이드 인 광주'

한국광기술원 6개제품 포함 9가지 국가표준안 마련키로

광주에서 생산한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산업규격(KS)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광주 첨단산단에 자리한 한국광기술원이 규격 제정을 주도하는 6가지 타입의 LED 조명 제품을 포함해 모두 9가지 LED 조명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LED 조명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소비자 신뢰를 얻고 기술력 있는 업체를 집중 육성해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술표준원은 1차로 >컨버터 내

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매입형 LED 다운라이트(등 기구) >LED 유도 등 4가지 타입의 LED 제품의 KS제정과 관련 오는 2월 20일 2차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2월 말께 최종안을 확정, 입법 고시할 계획이다.

이중 한국광기술원이 주도적으로 규격 제정에 참여한 제품은 컨버터형과 매입형 등 3가지다. 광주지역 LED 생산업체는 완제품 업체 30여 곳을 포함해 모두 116곳이다.

기술표준원은 또 4개 제품에 대한 KS 도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LED 가로등 >LED 보안등

>문자간관형 LED 모듈 >고정형·이동형 LED 등기구 등 5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KS 기준을 마련, 5월 말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보안등, 문자간관형 모듈, 고정형 등기구 등 3가지도 한국광기술원이 표준기술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LED 산업 등 광(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시와 지역 LED 조명 관련 업체들의 경우 KS 기준 마련이 지역 광산업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 손환환 과학산업과 광산

>LED(light emitting diode·발광다이오드)=반도체에 전압을 가할 때 생기는 발광 현상을 이용한 차세대 광원. 전력이 적게 들고 에너지 효율이 좋고 친환경적이다.

임옥성 주무관은 "이번 LED 조명 제품의 국가 표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광기술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관련 업체들의 경우 광기술원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타지역 업체들에 비해 국가 표준 인증을 받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상경제정부' 본격 가동

이 대통령 주내 위기 극복 대책회의 주재

정부가 6일부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운영에 돌입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정부 체제는 이날 인적 구성과 함께 사무실을 마련한 뒤 6일부

터 곧바로 가동한다. 비상경제정부는 이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점에 두고 거시경제 및 일자리 창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상황실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내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상황실은 상설기구로, 현재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사무실을 두게 된다.

또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책임자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소관부처는 물론 공기업 임직원 등이 참여하고, 각 부처마다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전방위 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상황실은 하루 하루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점검해서 대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테면 공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상 상황을 점검해 하자가 있을 경우 스피너를 들고 다니면서 불트와 너트를 조는 교정 역할을 하게 된다 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비상경제상황실장은 차관보급의 청와대 박 인사로 곧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과 분야별 실행책임자는 이날중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농성 일부 해제...여야 대화 돌파구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8일) 내에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테인더를 농성을 해제, 극한 대치로 치달던 여야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3·4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에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점거농성 해제와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입법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민주당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장 철수 등을 논의했다.

양당 회의의 결과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풀지 않고 있고, '선(先) 국회 점거 해제·후(後) 대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게다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선진과 창조모임'의 새 협상 대표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화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적절치 않

다"며 "본회의장과 삼일회 철수 문제는 한나라당과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우리키? 아이 성장클라닉

371-1075-6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